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권 윤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발달은 인체와 생명의 신비를 파악하고 인간 사회에 인락한 생활, 질병의 퇴치 및 고통의 극복 등에 큰 역할을 하여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학의 발달은 생명의 존중과 보호, 인간의 건강유지와 생명의 연장 등에 기여하여 불치병의 치유, 불임퇴치, 장기이식 수술, 생명연장술, 낙태, 안락사, 유전자 복제와 진단 및 조작 등을 가능하게 했다(Lee, 2002). 이러한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삶과 죽음에 대한 전통적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기존의 윤리적 판단이나 평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본성과 주체적 활동 및 환경과 관련하여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Han & Kong, 2002). 따라서 생명의료윤리는 단순히 기존의 윤리이론을 생명공학과 의학 영역에 응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패러다임의 요구(Kim, 2000)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된 응용윤리의 한 분야이다(Koo, 1999).

생명의료윤리는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야이고, 생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과학 기술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현명한 합의와 올바른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어진다(Choi, 2001). 또한 간호학과 의학은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한 학문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생명의료윤리 문제를 비평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어 학생들이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0).

선행연구(Lee, 2002)에 의하면 보건의료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가 되어왔으나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의료인의 한 직종인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어떠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졸업 후 행하는 전문적 간호행위와 직결되며,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됨으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명의료윤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의 각 쟁점들에 대한 의식과 입장에 대한 연구보고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신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구과학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임

**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engbira@hanmail.net)

투고일: 2009년 8월 10일 심사회의일: 2009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7일

속한 교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꾸어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 생명의료윤리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점검을 한다면 인간 중심적이면서 생명력 있는 유익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연구보고는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 분석(Lee, 2002), 교사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조사(Choi, 2002)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주로 생명의료윤리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Kong, 2001),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Kim, 2002; Kim, 2001), 간호사와 의사들의 윤리 비교 조사(Park, 2002)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된 생명과 죽음의 문제, 인간생명공학 등의 통합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연구는 소수였으며, 특히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영향 요인을 찾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생명의료윤리 의식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Gorovitz, 1977), 본 연구에서는 생식의 윤리문제(Lee, 2002)와 생명윤리(Choi, 2002)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을 Kwon(2003)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D 광역시와 G 북도에 소재하는 4년제 6개교 간호대학생 355명과 3년제 5개교의 간호전문대학생 360명, 총 71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선정기준은 4년제 간호대학 4학년생과 3년제 간호전문대학 3학년생으로 2차 병원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 1개년(2학기)이상 임상실습을 하여 실습학점을 이수하고, 또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교과목(간호윤리, 생명윤리 등)의 수업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의 도구는 Lee(1990)가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생식의 윤리문제(Lee, 2002)와 생명윤리(Choi, 2002)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을 Kwon(2003)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 도구이다.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생명공학 등 9개 하위요인,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최저 49점에서 최고 196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hronbach's α .80이었다.

분석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6월 1일에서 7월 20일까지였으며, 설문조사는 D광역시와 K도에 소재 하는 6개교의 4년제 간호대학, 5개교의 3년제 간호전문대학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도움에 승인한 교수의 도움을 받아 간호대학생들을 소개받았다. 연구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승인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작성 소요시간은 15분-20분이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다.
- 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비교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4)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제, 경제 상태, 종교, 종교생활의 참여도, 형제·자매 수, 가족 중에서 의료요원의 유무, 가족병력, 헌혈 경험, 동아리 모임 유무, 동아리 참여도, 동아리 소속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8.8%, 여자 91.2%였으며 연령 평균은 21.3(± 1.71)세로 21-22세 51.7%로 가장 많았고, 학제는 4년제 49.5%, 3년제 50.5%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보통 59.2%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 28.0%, 천주교 11.7%, 불교 17.2%, 종교가 없는 학생 43.1%로 나타났다. 종교생활 참여도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참여 2.8%, 대체로 열심히 참여 22.4%, 형식적인 참여 10.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형제·자매 수에서는 1명 45.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중 의료요원의 유무에 대한 분포는 의료요원이 있다 13.1%로 상당수가 가족 중에 의료요원이 없었다. 가족 중에 질병을 앓았거나 사망한 분포는 대상자의 62.2%가 없다고 응답하여 가족 중에 질병을 앓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없는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헌혈 경험에서 53.1%가 경험이 있었다. 동아리 모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15)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63(8.8)
	Female	652(91.2)
Age	≤20	246(34.4)
	21-22	370(51.7)
	23-24	63(8.8)
	25≤	36(5.0)
College	3-year nursing college	360(50.5)
	4-year nursing college	355(49.5)
Economic status	Well-to do	15(2.1)
	Average	423(59.2)
	Poor	277(38.7)
Religion	Protestant	200(28.0)
	Catholic	84(11.7)
	Buddhist	123(17.2)
	None	308(43.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715)

Characteristics	Category	N(%)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st active	20(2.8)
	Active	160(22.4)
	Somewhat active	73(10.2)
	Least active	62(8.7)
	None	300(42.0)
Number of siblings	Only child	20(2.8)
	One sibling	323(45.2)
	Two siblings	214(29.9)
	Three siblings	89(12.4)
	More than four siblings	69(9.7)
Medical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94(13.1)
	No	621(86.9)
Patients or the dead in family member	Yes	270(37.8)
	No	445(62.2)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380(53.1)
	No	335(46.9)
Student group	Yes	145(20.3)
	No	570(79.7)
Participation in student group activity	Most active	30(4.2)
	Active	83(11.6)
	Somewhat active	20(2.8)
	Least active	12(1.7)
	None	570(79.7)
Kinds of student group activity	Volunteering activity	36(5.0)
	Hobby	48(6.7)
	Education and research	10(1.4)
	Alumni meeting	15(2.1)
	Others	36(5.0)
	None	570(79.7)

유무에서는 20.3%가 동아리 모임이 있었으며, 동아리 소속 종류에서는 의료봉사와 취미생활 동아리에 주로 많이 소속되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으로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 생명의료윤리 정보 출처,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생명의료윤리 갈등 경험, 생명의료윤리 청취기회 참석 희망 여부, 생명과학,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상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에서 매우 확고하다 6.9%, 가끔 흔들린다 41.5%, 상황 따라 바뀐다 50.6%로 나타났으며,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다 98.3%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 정보 출처는 TV 42.8%, 책, 신문, 잡지 14.3%, 학교수업 37.2%, 인터넷 4.3%, 연수, 강연

0.7%로 TV를 통한 정보나 지식을 가장 많이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교육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0.9%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문제로 갈등해 본 경험에 대해서 대상자 중 갈등한 경험이 있다 51.4%로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문제로 갈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95.1%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평점은 2.99점(±.23)로 나타났다. 하위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Biomedical Ethics of Subjects (N=715)

Characteristics	Category	N(%)
Ethical values	Very firm	49(6.9)
	Sometimes confused	297(41.5)
	Depend on the situation	362(50.6)
	Not realistic	7(1.0)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Yes	703(98.3)
	No	2(0.3)
	Not interested	10(1.4)
Source for information or knowledge of biomedical ethics	TV	306(42.8)
	Book, newspaper, magazine	102(14.3)
	School class	266(37.2)
	Internet	31(4.3)
	Training, Lecture	5(0.7)
	Others	5(0.7)
The quantity and quality of biomedical ethics in the current curriculum	Enough	65(9.1)
	Not enough	650(90.9)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in subjects	Yes	372(51.4)
	No	320(44.8)
	Not interested	28(3.2)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thical problem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ife science	Yes	680(95.1)
	No	25(3.5)
	Not interested	10(1.4)

Table 3.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Subjects (N=715)

Biomedical ethics	3-year nursing colleges(n=360)	4-year nursing colleges(n=355)	Total (n=715)
Right to life of fetus	3.28±.48	3.29±.47	3.29±.48
Artificial abortion	2.68±.31	2.79±.31	2.74±.32
Artificial insemination	3.06±.37	3.10±.34	3.08±.33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18±.37	3.08±.36	3.13±.39
Right to life of newborn	3.31±.48	3.30±.47	3.31±.46
Euthanasia	2.82±.42	2.80±.41	2.81±.41
Organ transplantation	2.83±.31	2.82±.33	2.83±.32
Brain death	2.79±.30	2.68±.32	2.73±.31
Human biotechnonology	2.99±.32	3.00±.34	3.00±.33
Total	2.99±.22	2.98±.24	2.99±.23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신생아 생명권'으로 3.31 점(±.46)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뇌사'로 2.73점(±.31)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분석한 결과(Table 4) 연령, 종교, 종교생활 참여도, 동아리 소속 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에서 20세 이하 144.39점, 21-22세 146.85점, 23-24세

147.97점, 25세 이상 148.51점으로 25세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F=2.89, p=.044).

종교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기독교 149.15 점, 천주교 148.22점, 불교 146.28점, 무교 145.54 점, 기타 137.0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F=5.56, p=<.001). 종교생활 참여도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는 대단히 열심히 참여하는 대상자가 149.35점, 대체로 열심히 하는 대상자 149.23점,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대상자 147.08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대상자 146.79점으로 대단히 열심히 종교생활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가장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F=4.29, p=.001).

동아리 소속 종류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봉사

Table 4.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F	p
Gender	Male	141.21	12.14	-1.62	.084
	Female	146.91	9.92		
Age	≤20	144.39	8.71	2.89	.044
	21-22	146.85	10.34		
	23-24	147.97	12.17		
	25≤	148.51	8.68		
College	3-year nursing college	146.51	10.78	1.48	.243
	4-year nursing college	146.02	11.76		
Economic status	Well-to do	143.85	11.87	2.38	.101
	Average	146.61	9.49		
	Poor	148.34	11.73		
Religion	Protestant	149.15	9.44	5.76	<.001
	Catholic	148.22	10.88		
	Buddhist	146.28	9.03		
	None	145.54	9.85		
	Others	137.00	13.75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Most active	149.35	9.87	4.29	.001
	Active	149.23	12.30		
	Somewhat active	147.08	10.18		
	Least active	146.79	8.67		
Number of siblings	Only child	149.22	9.79	1.88	.126
	One sibling	146.00	10.52		
	Two siblings	147.92	9.54		
	Three siblings	147.08	8.45		
	More than four siblings	145.92	9.91		
Medical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146.56	8.52	-.44	.730
	No	146.89	10.16		
Patients or the dead in family member	Yes	147.51	10.16	1.53	.156
	No	146.45	9.83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147.23	9.71	1.23	.247
	No	146.42	10.23		
Student group	Yes	147.14	9.78	.74	.528
	No	146.67	9.88		
Participation in student group activity	Most active	148.90	9.80	2.11	.095
	Active	144.92	9.78		
	Somewhat active	142.94	8.49		
	Least active	145.91	10.48		
Kinds of student group activity	Volunteering activity	144.88	9.28	4.95	<.001
	Hobby	142.49	9.56		
	Education and research	138.60	6.86		
	Alumni meeting	143.00	12.74		
	Others	148.40	9.25		

활동 144.88점, 교육과 연구 동아리 138.6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95, p<.001$). 즉 봉사활동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대학생이 가장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Table 5)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 윤리 교육의 질과 양, 생명의료윤리 문제 갈등 경험,

생명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 증가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윤리적 가치관에서는 매우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152.36점으로 가끔 흔들리는 가치관(147.98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치관(145.37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윤리 의식을 나타냈으며($F=14.38, p<.001$),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Table 5.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y Characteristics Related to Biomedical Ethics of Subjects (N=7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F	p
Ethical values	Very firm	152.36	9.95	14.38	<.001
	Sometimes confused	147.98	9.97		
	Depend on the situation	145.37	9.16		
	Not realistic	139.17	14.14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Yes	147.01	9.80	7.73	<.001
	No	144.75	9.63		
	Not interested	137.80	13.69		
Source for information or knowledge of biomedical ethics	TV	147.01	8.86	2.57	.101
	Book, newspaper, magazine	147.66	9.50		
	School class	146.61	10.22		
	Internet	148.54	12.79		
	Training, Lecture	142.60	21.11		
	Others	141.73	8.67		
The quantity and quality of biomedical ethics in the current curriculum	Enough	149.49	9.74	7.68	<.001
	Not enough	144.88	9.80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in subjects	Yes	147.48	9.23	16.12	<.001
	No	146.97	10.25		
	Not interested	138.15	11.45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thical problem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ife science	Yes	147.94	9.18	19.66	<.001
	No	143.85	11.13		
	Not interested	141.22	10.85		

의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청취 경험이 있는 대상자(147.01점)가 청취 경험이 없는 대상자(144.75점)와 관심이 없는 대상자(137.80점)에 비해 높은 생명의료 윤리 의식 수준을 나타냈다($F=7.73, p<.001$).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에 따른 차이에서 충분한 교육을 인식한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 대상자보다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을 나타냈으며($F=7.68, p<.001$), 또한 생명의료윤리 문제 갈등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윤리의식을 나타냈다($F=16.12, p<.001$). 그리고 생명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 증가 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더 유의하게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이 높았다($F=19.66, p<.001$).

4.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예측 변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종교, 종교

생활 참여도, 동아리 소속 종류,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생명의료윤리 갈등 경험, 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증가 가능성 등의 9개의 변수를 가능한 예측변인으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적 가치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종교, 연령,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가치관(.122)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은 현재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020), 종교(.017), 연령(.010),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009)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 요인들로 구성된 회귀모형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17.8% 설명하였다.

IV. 논 의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평점은 2.9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비교한

Table 6. The Predicting Variables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Subjects

(N=715)

Variables	β	t	P	R ²	F
Ethical values	.122	58.15	<.001		
The quantity and quality of biomedical ethics in the current curriculum	.020	47.74	<.001		
Religion	.017	38.50	<.001	.178	43.13
Age	.010	34.13	<.001		
The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009	18.96	<.001		

Kwon(200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평균평점 2.97점으로 비슷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추후 일반대학생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하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신생아 생명권'으로 3.31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뇌사'로 2.73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하위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신생아 생명권'으로 나타난 Kwon(2003)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가장 낮은 영역은 '인공임신중절'인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표집방법이 달라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대상자 표집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 및 확대연구를 통해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신생아 생명권'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관념상 신생아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고(Meng, 2001),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Jung & John, 2000) '신생아 생명권'에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뇌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 뇌사에 대해 '존엄사' 등의 강한 찬성의 여론이 나타나므로 사회적인 인식과 흐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종교, 종교생활 참여도, 동아리 소속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에서 25세 이상이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것은 연령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연령의 증가하는 삶의 경험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기독교인 대상자가 가장 높았는데, Kwon(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종교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생명 의식과 종교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Suzumori, 1992) 보고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생활 참여도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는 대단히 열심히 종교생활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가장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에 비해 윤리적 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Choi, 2001)과 비슷한 맥락으로 대부분의 종교의 특성은 윤리적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생명의료윤리 문제 갈등 경험, 생명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 증가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윤리적 가치관에서는 매우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높은 윤리 의식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Kwon(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윤리적 기준에 따른 간호윤리가치관은 매우 확고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는 Choi(2001)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긍정적 확립이 필요한 때인 간호대학생 시기에 윤리적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청취 경험이 있는 대상자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았는데,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한 교육을 통한 윤리적 비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에 따른 차이에서 충분한 교육을 인식한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 대상자보다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나타났는데,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Gaul(1987)의 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이 윤리적 선택이나 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을 충분히 인식한 간호대학생이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에서 충분한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고 사료되어진다. 생명의료윤리 문제 갈등 경험이 있는 대상자, 생명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 증가 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won(2003)의 결과와 같았는데, 이는 생명의료윤리 갈등은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이 생명의료윤리 이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로 의학발달과 생명의료윤리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변인을 살펴보면 윤리적 가치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종교, 연령,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의 설명력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예측하기에 다소 부족하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비교한 Kwon(2003)의 연구에서의 설명력 8.9%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추후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찾는 반복 확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예측요인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예측요인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바람직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09년 6월 1일에서 7월 20일까지 D광역시와 G도에 소재하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생 360명, 4년제 간호대학생 355명 총 715명을 임의로 표본 추출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 관련 특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평점은 2.99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생명의료윤리 의식 하위영역은 '신생아 생명권', 가장 낮은 생명의료윤리 의식 하위영역은 '뇌사'이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연령, 종교, 종교생활 참여도, 동아리 소속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생명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생명의료윤리 문제 갈등 경험, 생명의료윤리 청취 기회 참석 희망 여부, 생명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 증가 가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변인은 윤리적 가치관,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종교, 연령, 생명의료윤리 청취 경험이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직업윤리와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Choi, C. S. (2002). *Bio-ethical consciousness*

-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Gangneung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 Choi, Y. R. (2001). *A comparison of nursing-ethics between nurses and student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Gaul, A. L. (1987). The effect of a course in nursing eth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choice and ethical action in baccaluate nursing students. *J Nurs Educ*, 26(3), 113-116.
- Gorovitz, S. (1977).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Monist*, 60, 3.
- Han, S. S., & Kong, B. H. (2002).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es*. Samjin print Co.
- Jung, Y. S., & John, M. M. (2000). The ethical treatment of impaired neonates: Evaluating the werding-hoffman case at Dankook University Hospital. *Korean J Med Ethics Educ*, 3(2), 211-230.
- Kim, A. K. (2002). The study of attitude to passive euthanasia among Korean nurses. *Korean J Fundamental Nursing*, 9(1), 76-85.
- Kim, M. G. (2001). A survey of the korean nurses' opinions toward the ethical problems. *Korean J Med Ethics Educ*, 4(1), 15-30.
- Kim, S. D. (2000). *Biomedical ethics*. Philosophy & Reality publishing Co.
- Kim, Y. S. (2000).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nsciousness on ethics between clinical nurses and student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ong, B. H. (2001).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Chung-Ang J Nurs Sci*, 5(1), 79-88.
- Koo, Y. M. (1999). *Biomedical ethics*. Dongnyok publishing Co.
- Kwon, S. J. (200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G. S. (2002).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non health care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Y. S. (1990). *A study on the ethical values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Meng, K. H. (2001). *Medical ethics*. Gyechuk publishing Co.
- Park, S. S. (2002). *Ethical values on medical behavior of medical doctor and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uzumori, K. (1992). New advances in prenatal diagnosis: implications of preim-plantation diagnosis of genetic disease. *Human Genome Research and Society*, 6, 72-75.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Kwon, Yunhee(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Objectives: This study sought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sense of ethics in medical service by analyz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Methods:**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selected from four-year and three-year nursing colleges(n=355 and 360, respectively) in D city and G buk-Do regio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point of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2.99. As result of analyzing general and specific aspects of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ge, religion,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kinds of student group activity in subjects, ethical values,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quantity and quality of biomedical ethics in the current curriculum, the experience of conflict for biomedical ethical problem in subjects. The predicting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ethical values, quantity and quality of biomedical ethics in the current curriculum, religion, age, and experience of hearing for biomedical ethics. **Conclusions:** An arbitration program that could promote either changeable or controllable ethical values must be considered with attention to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can promote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Ethics, Nursing students